

너를

86

2020 상반기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디지털 성폭력 이슈파이팅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며
11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맞서는 감경후원 대응기
16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현장 스케치
22	4.15 총선 대응 캠페인 <#call21st> 후기
27	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후기
32	원대상담소
34	열린터 다이어리
34	자립에 관하여
38	생존자의 목소리
38	목소리
40	상처 입은 치유자
45	[광고]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46	성문화읽기
46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십억 명의 저항, ONE BILLION RISING
51	존엄의 조건 : 정의연 사안, 그 곁에서
55	"영리한" 증언자와 "영리하게" 연대하기 : 『증언혐오』를 읽고
60	시끌시끌 상담소
60	위기의 코로나19 시대, 활동가들은 어떻게 '활동'해?
6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해봤더니.....
68	아낌없이 주는 나무
72	훈훈한 기부

디지털 성폭력 이슈파이팅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며

감이_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9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실상을 알고,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반성폭력운동의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의 고민을 들어보실래요?

최근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이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9년 말부터 대학생 여성 두 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의 심층취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리셋(ReSET)>은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하여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텔공대위’). 2020년 2월 14일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구성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출범 이후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 나서 한국여성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더 많은 여성운동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텔공대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성명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공판 모니터링, 입법TF 구성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오늘부터!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 2020년 4월 29일 통과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게시물 “#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합박강요_처벌”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피켓팅과 퍼포먼스, [강남역부터 n번방까지: 성폭력 규탄 이어말하기] 등을 진행하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n번방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 중인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 촉구 시위> 등 많은 시민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짐을 지고 지켜보기만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온 경찰, 피해자의 존재나 피해 경험에 관심이 없는 검찰, 한 번의 실수쯤은 눈감아 줘도 된다면 가해자를 두둔하는 재판부, 여성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제정할 생

** 한겨레, 2020.03.25.일자, “당신이 모르는 ‘n번방’ 폭로의 진짜 공로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9084>)

각이 없는 입법부 등 모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여성들의 삶에는 불법촬영,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이상 국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이 직접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실질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통의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이 시대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박사’, ‘갯갯’, ‘와치맨’ 등 성착취를 주도한 핵심인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조직적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고, 그 가학과 해악성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여느 성폭력 사건들을 총망라하는 양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이라는 공범 집단의 규모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껏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로 체감하면서도 짐작만 할 뿐이었던 디지털 성폭력의 근원, 즉 남성연대 안 공간문화의 규모를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암암리에 공유하고 있던 불법촬영물들이 어떻게 제작/공유/유통되고 있는지도 명확해졌기에,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공통된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겠지요.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에는 30일간 2,715,626명이 동의하고 참여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그 분노를 변화의 힘으로 이어간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짐 지고 있던 국회를 움직여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켰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4월 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촬영물 비동의유통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수입은닉규제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5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디지털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이 정부 주무부처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아무리 해도 실질적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아 답답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통과되어 어안이 병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과 이번 n번방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선 시민들이 일구어낸 소중한 변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마주하는 활동가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첫째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재유포 피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하던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되었던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경에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에 새로 유입되는 인원이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텔레그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성착취/불법촬영물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이죠.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즈음에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 중에서 남자 지인들이 갑자기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알림이 많았어요. 그 알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지만,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검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검색하거나 피해촬영물들을 찾아보는 재차 피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공론화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확대된다는 것은 너무도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사’나 ‘갯갯’ 등 핵심 주동 인물들이 검거되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났는데, 보도에 촬영물들을 설명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가해 집단 문화를 재구성해 공개한 카드뉴스. 순화를 했음에도 너무 적나라한 내용 때문에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알람을 기재해야 했다. (출처: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등장하는 특정 키워드들을 이용하면 곧바로 피해촬영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 피해촬영물들이 그대로 올라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텔공대위에서 언론에 가장 간곡히 당부했던 것 역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국민적 공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해집단의 성착취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멸시, 혐오하는 강간문화를 재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사건을 포르노그래피적으로(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 소비하는 언론 보도 등의 재현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피해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개별의 관계와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실천’으로 바라보지 않고, ‘권력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에 반하여 일어난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 성착취의 방법과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해집단이 공유하는 어휘, 공모 및 가해 방식, 여성(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콘텐츠가 활용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 집단 내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이한(!) 어휘들이지만, 대중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대화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텔공대위에서 발행한 카드뉴스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텔레그램 기본 바탕화면을 배경으로 실제로 가해집단이 나누는 대화를 재구성한 총 9종의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직접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한 활동가들의 경험을 1/10 정도 순화시킨 내용이었는데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걸레’, ‘암0년’, ‘발육’, ‘떡’, ‘얼싸’, ‘육덕’, ‘0번기’ 등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들이 페이지마다 수차례 등장했는데, 피해자 혹은 여성집단을 멸시하는 태도가 적나라해서 카드뉴스 이미지를 보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업로드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텔레그램 사건의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의 콘텐츠가 자칫 성착취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창구가 되지 않는지 염려가 됐습니

다. 그리고 트리거 워닝***이 필요할 정도로 이와 유사한 피해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힘든 경험을 되새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강간문화의 재현이 자칫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와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과도한 정보와 자극이 되어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내는 창구가 되지 않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여러 고민과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로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지치지 말고, 서로 어깨다독여가며, 기회가 된다면 함께 만나 고민을 나누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결국은 승리의 경험을 나누어 가지길 바랍니다. ☹

*** trigger warning,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용어인 트리거는 비유적으로 촉발제나 스위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기 전에 이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붙이는 경고. 그런 주제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페미위키 참고 femiwiki.com)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맞서는 감경후원 대응기

닷별_사무국 활동가

，

N번방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자 감경 목적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감경 후원, 반성문 제출 등 끝나지 않는 가해자들의 감형 전략.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성폭력 관련 수사/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후원회원분들 중, 비교적 최근에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전화 한 번쯤은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후원회원분들을 당황하게 한 이 멘트, 듣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말입니다. 성폭력이 이 세상에서 뿌리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한 ‘선의의 후원’을 의심하는 말이니깐요.

나눔터 84호에 실린 ‘불편한 후원’에도 살짝 언급되었지만, 후원 업무를 맡게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는 ‘후원목적 확인차 전화하기’

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매번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담소처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재정 독립성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소의 상황을 들어보시면 왜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포털사이트에 '성폭력'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피해자 지원기관입니다. 그 덕분에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목소리에 동참해주는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감경 목적 후원도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2019년에만 23명, 2020년 2월까지만 13명의 가해자 및 가해추정인이 상담소로 후원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후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의 가족이나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 적발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된 올해 3월부터는 감경 목적의 후원도 일반 후원자만큼이나 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모든 가해자의 후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과정이 끝났거나, 피해자와 합의 조건으로 후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확인을 거친 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감형을 목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가 재판이 끝나면 후원을 중단하시더라고요. “재판을 받던 게 있었는데, 끝나서 후원 해지한다.”라는 가해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분노를 넘어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0년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 가해자들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감형받고 있다는 소식이 기사화되면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지는 '성폭력상담소'가 언



_ 올해 2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로스쿨 학생들과 2주간 진행한 동계공익법무실습 활동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사진은 동계공익법무실습 판례분석 발표회.

급된 감경사유가 2018년 판결문에서도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기관에 후원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유죄 판결 시 형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감형되는 이유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법원에서 기소를 유예해 주거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형을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공탁금을 거는 것, 공탁금을 걸 수 없을 경우에 선택하는 게 ‘피해자 지원기관에 후원하기’입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 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결과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상담소 기부내역은 ‘반성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해자의 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포트폴리오처럼 차곡차곡 모인 자료들로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의 반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돈으로 산 ‘반성문 포트폴리오’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직접 들을 기회가 무척 적습니다. 가해자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만, 검사가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 있는 현재의 구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인신문 이외에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소할 때에도 ‘2차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 추가진술 요청을 하지 않아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가해자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는 환경 때문인지,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의 양형을 결정할 때 가해자의 시선에 가까운 양형 이유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친족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서 “(친권자인 가해자가) 나름대로 수년간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18 판결문 참조 (정준영 2심 판결문)

**판결 근거가 있더라도
비판점은 있다**

일방적인 후회 반성문 대질사이트 양형자료 제출 일 성범죄 대응 매뉴얼

**‘진지한 반성’을 돈으로 사는 가해자들,
재판부는 알고 있습니까?**

윤찬우의카드뉴스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형식적 ‘반성’이 아니다!**

1)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보수적으로

2) 반성을 감경요인으로 고려했다면 어떤 점이 진심어린 반성이었는지 판결문에 작성

‘진지한 반성’이라는 표현의 남용을 방지하고 양형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판결 신뢰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궁금하다면?
<https://bit.ly/2uNji54/>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검색

카드뉴스 2면에서 만나요!

윤찬우의카드뉴스

_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6회에 걸쳐 카드뉴스를 연재했다

점”** 등의 감형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성폭력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재판부가 가해자의 목소리에 이입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세요! 🗣️

**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6등(병합) 판결문 참조. (200219 상담소가 대법 양형위원회에 낸 의견서 판례 재인용)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현장 스케치

주현_여성주의 연구자, 자원활동가

9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처

'동의'란 무엇인지,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누가 '동의'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여성주의 연구자 주현님의 후기를 통해 주된 쟁점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4월 29일 형법상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이에 대해 토론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의제강간죄는 일정 나이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자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개정 형법 제305조는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나이불문하고 처벌하는 기존 형법에,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더해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높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약 300여 분이 동시접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_ 단독 온라인 생중계에 첫 도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는 발표자와 스태프만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전원 마스크를 쓴 채 진행했다.

그동안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괄적인 연령 상향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오갔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단순히 의제강간 연령 상향 찬성 또는 반대라는 이분법을 넘어 16세 미만의 '동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소년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장을 마련했습니다.

집담회는 성문화운동팀 앞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님, 탁틴내일의 권현정 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님,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의 민들레 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 님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로 나선 SHARE의 나영 님은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나영 님은 현행법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보다 폭행·협박과 같은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적 동의에 있어 “***는 동의할 수 있다/없다”를 따지는 것이 동의 역량의 기준을 개인의 상태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동의 조건을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인지 동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동의의 경우도 단순한 나이가 기준이 되기보다 선거권, 주거권,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정도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탁틴내일의 권현정 님은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의제강간 상향의 의미는 단순히 청소년이 성적 역량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동의만 구하면 청소년과 어떤 성적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고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비청소년 관계에서 특정한 나이 차이는 동의의 조건인 대등함을 지니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의제강간 상향이 그루밍 성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의 공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법 적용과 시행에서 가해자에게 연령 확인 책임을 지우고, 폭행·협박에 의한 성폭력은 의제강간·추행에 더해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티의 양지혜 님은 ‘청소년의 관점으로 말하는 ‘동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양지혜 님은 성에 무지하고 순결한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한편 스스로의

욕망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청소년의 이중적 위치에 대해 짚어주었습니다. 이에 비청소년과 청소년의 연애에 대해 비정상적으로만 보기보다 왜 비청소년-청소년 관계가 폭력적일 수 있는지, 청소년은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위계를 넘어 동의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는 성숙도에 비례하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연장선상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숨기거나 부모가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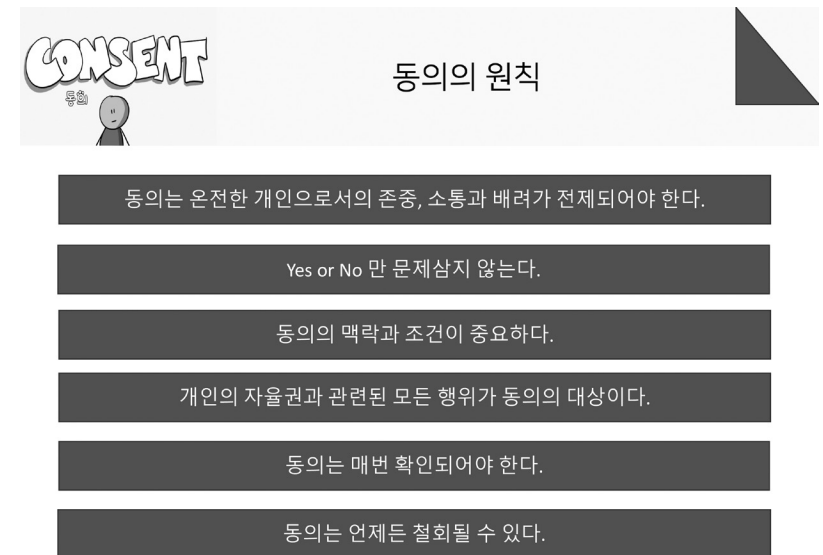
장애여성공감의 민들레 님은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적 실천이 불가능하거나 성적 욕망을 조절할 수 없다고 낙인찍힌 존재로 여겨지며, 성적 동의가 필요한 존재로서 존중되고 수용되기 더 어렵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성관련 정보·교육이 부재하거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계 맺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폭력에 노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권력이 교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하기에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룸의 유나 님은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담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유나 님은 동의와 자발성, 선택의 논의가 성매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성매매는 고수의 홍보를 통해 성폭력으로 여성을 비인격화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상기시켜 여성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고 구체적인 동의 과정에 대한 각본이 없는 성매매 현장에서, 자발 또는 비자발이라는 이분화된 담론은 성매매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넘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조건만남 앱은 여성의 동의·자발성을 앞세워 성매매 알선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사전에 받은 질문과 온라인 채팅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취합하여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동의 구분이 어려운 비강압적 착취에 대해 발표자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SHARE의 나영님을 대신해 토론에 참여한 나영정님은 청각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성적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의 동의를 구할 특별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탁틴내일의 권현정님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위티의 양지혜님은 선택의 전제 조건과 다양한 선택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의 민들레님은 장애인이 피해자로만 호명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특정 관계가 온전히 폭력 또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며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일차원적인 이분법을 경계했습니다. 이름의 유나님은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할 또는 동의를 구할 역량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일상의 경험과 공동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 성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동의강간죄 도입, 수사 재판 과정의 입증 문제, 이미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된 상황에서 법 활용의 문제 등에 관한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집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_ 출처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4.15 총선 대응 캠페인 <#Call21st> 후기

테오즈_세도우핀즈 활동가, 널채움 구성원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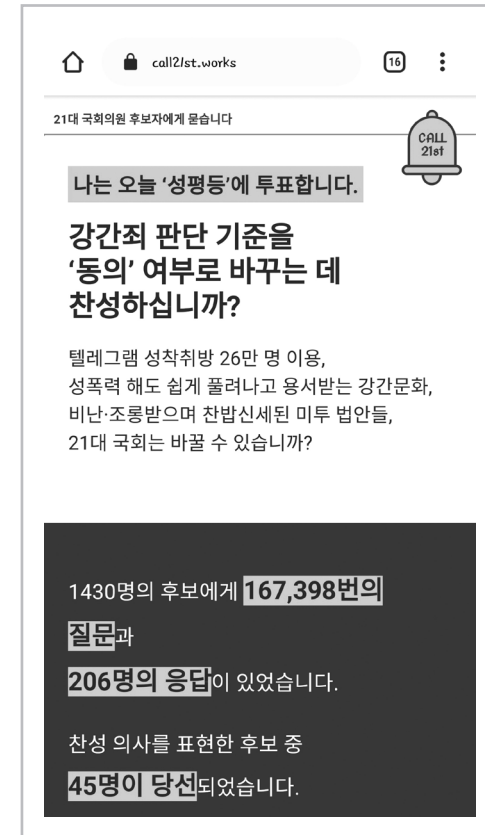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총 206건의 응답을 받은

#Call21st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테오즈님의 후기입니다.

악법(惡法)도 법(法)이었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는 '악법(惡法)'으로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을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풀어주고 피해자들을 '피해자답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법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는 근거를 제공해왔습니다.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Call21st 프로젝트는 연대회의가 힘써온 일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래밍/그래픽 디자인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 만든 캠페인이었습니다.



_ 자체 개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새로운 형식의 캠페인, #Call21st

비정기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세도우핀즈와 시빅해킹 네트워크 널채움은 연대회의와 함께 약 432시간, 18일간의 집중적인 협업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는 약 5개월 동안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업의 첫 단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매우 부실한 후보자들 연락처 리스트의 공백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매꾸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과 웹사이트 구축 면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했고, 홍보 면에서는 #call21st 프로젝트 주최자들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일반

참여자들이 직접 개인 SNS로 참여 확산 독려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이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의 협업이 가지는 리스크,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등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으나,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프로젝트 주최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내/외부적인 피드백을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430명의 후보에게 167,398번의 질문이 보내졌고, 206명이 응답했습니다(찬성 204명, 반대 2명). 찬성 의사를 표현한 후보 중 45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거꾸로 카운트다운

1998년에 ‘호주제폐지시민모임’이 발족한 이후, 실제로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스톱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로 20년 넘게 국회를 계류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에는 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체될 것인지 벌써부터 답답합니다. 각종 강간 사건 재판 방청을 들어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금도 피고인/가해자 측 변호사와 솜방망이 판결 내기 직전의 판사 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멘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를 듣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위 자체에 폭행과 협박이 있다는 식으로 기습추행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을 전형화하지 않는 유연한 판관들의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형법 제297조가 고수하는 최협의설(最狹義) 때문에 자신의 강간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의 법, 형법 제297조가 여성들에게 왜 ‘악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한다면, 입법에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강간죄 개정까지의 지체시간을 줄여, 여성의 사법적 지위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모두 잠재적 강간범이에요! (..) 엄청난 숫자의 강간범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남성 전체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일만큼 커다란 결함을 안고 태어났음을 부당하게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남자를 악마 취급하고, 헐뜯고, 차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타락해 어처구니없을 만큼 부당한 재판 절차에 밀어 넣으며, 여자가 단지 그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이용된다.”* *

페미니즘에 알 수 없는 미신적 반감을 품은 남성들, 성범죄 피해를 겪은 여성의 인생을 구제하려는 법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폄하하는 남성들은, 강간죄 개정에 대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자신과 친구가 해오던 어떤 일을 못 하게 됐으니까요. 강간죄 개정은 2차 피해의 개념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될 때의 반발과 비슷한 사회적 논란과 반발을 뚫어야 할지 모릅니다. 제21대 국회가 활동하는 5년 동안 발의될 법안과 그 법안의 통과 여부를 저는 끝까지 지켜보며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45명 의원에게 발송한 당선 축하 메시지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강간죄개정까지 며칠이나 걸릴지 함께 거꾸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Call21st 프로젝트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

* 안티 페미니스트 웹사이트 앵그리 해리(www.angryharry.com)의 글 부분 인용 출처: 조디 래피얼 자음/최다인 옮김, "강간은 강간이다", 글항아리, 2016.11.11., 53p



_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찬성 의원 45명에게 발송한 당선축하증

토론회 후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이미경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9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

새로운 정치로 연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해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제로 연대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4월 3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의 공동주최로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년 동안 한국 #미투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변화들을 모아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어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발제·토론자와 실무진 외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 점이 아쉬웠지만, 또 그 덕분에 전국에서 수백여 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향했던 의심과 비난에 맞서,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이제는 멈춰라”라는 생존자들의 준엄한 말하기입니다.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현직 감사의 발화를 기점으로 각 분야로 확산한 #미투운동은 기존의 잘못된 관습·제도 등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전국 350개 단체가 모여 #



_ <#미투 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현장

미투시민행동을 출범한 이래, 수많은 시민·활동가들이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토론회나 기자회견장에서 다 함께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외침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보름 후인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그동안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들을 각 당의 총선공약으로 연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미투시민행동 등 여성단체 및 대중운동의 활동을 기록·정리하고, 내일의 운동 방향을 그려보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토론회는 3부로 나누어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미투운동, 한국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었어요. 발제자들은(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미투시민행동의 출범목적 및 주요활동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첫째,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행동했습니다. 각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상황실을 운영했고,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의 물결로 10개 지역에 #미투시민행동이 만들어졌으며, 거리에 말하기 광장이 열리고, 2019년에는 검찰개혁에 주목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연대로 안희정·이운택사건공대위 등 사건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를 비롯한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위력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다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책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성폭력 대책 요구와, 209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활동을 통한 법 개정 촉구 활동,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운동을 통한 사법부의 변화 요구 등을 담았습니다. 넷째, 일상과 활동에 대한 성찰, 변화, 그리고 전 사회적인 변화를 추동했습니다. 특히 노동현장을 바꾸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활동과 그동안 ‘성평등’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변화, 그리고 언론계에 나타난 변화들을 짚었습니다.

2부에서는 “#도약-미투운동을 막아선 방해물 넘기”를 주제로, 분야별 반성폭력 현장 활동가와 피해당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님은 “침묵하는 피해자에서 성평등한 구조변혁의 주체로”라는 제목으로 여성노동상담 '평등의전화' 통계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분석하고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과 직장 및 가해자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여성인권단체협의회 백영남 님은 “지역사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성폭력 대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평군수 및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 대응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어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님은 “#MeToo에서



_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미경 소장

#WeListen으로 스쿨미투 제2막을 여는 청소년들”이란 제목으로 스쿨미투 이후를 짚으며 정부가 스쿨미투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봄날 님은 “미투운동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이란 제목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미투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지만 주목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지속적인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연대하겠다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2부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불법촬영피해고발자 양예원 님이 “세상이 발전하며 생겨난 성범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란 제목으로 고발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끝없이 해명하고 해명해야 했던 시간과 2차 피해 경험,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낸 이후에 느끼는 자존감의 변화를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2부는 현장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고 힘있게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3부에서는 “#페미니즘 정치가 되다”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곱 분의 발표가 있었어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푸른나비 님은 “말하는 우리가 ‘정상’이다. ‘정상 가족신화’에 갇힌 국가는 반성하라”며 특히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활동가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제목으로, ‘국민’에서 제외된 이주여성들의 지난한 소수자 운동의 현주소를 발표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최유경 님은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상상하며”에서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또 하나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젠더연구소의 제하나 님은 “‘메갈’에서 ‘한녀’로-20대 여성의 페미니즘 정치 가능성 사유하기”에서 20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속 미투에 관한 몇 가지 분노 지점을 분석해 발표했어요.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미투 조롱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커뮤니티 외부에는 현재진행형인 일상의 분노가 있음을 지적했어요. 다음 발표자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님은 “양질병행의 법칙: 정치하는 여성도 페미니스트도 많아져야”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정당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는데 정의당 여성본부장인 조혜민 님과 녹색당 비례후보인 성지수 님은 각각 “2020 총선과 그 다음을 그리며: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와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한 페미니스트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어요.

3시간 동안의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현장 참여자들이 한 사람씩 마이크 앞에서 서서 각자가 원하는 21대 총선에 대해 한 마디씩 발표하는 “#2020년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퍼포먼스”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에의 열망을 구체화되었고, #미투시민행동 활동 속에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배웠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성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이 #미투에 응답할 때입니다. 🙋

- 1월** 1/13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1/31 한국성폭력상담소 제29차 정기총회
- 2월** 2/12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15 [화원놀이티] 2020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2/18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 3월** 3/8 [온라인]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SNS 발언대 : 3.8말하기〉
 3/8 [온라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3/26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3/30 [온라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3/30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 4월** 4/2-14 [온라인]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4.15 총선 대응 캠페인
 〈call21st :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4/3 [온라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4/1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권_보장〉
 4/13-17 [온라인] 활동가 인터뷰
 〈상담소 29주년 생일축하 : 활동가 환갑맞이 질문코너〉
- 5월** 5/19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지금 여기, 반짝이는 삶〉 시작 (10회기)
 5/22 [온라인] 〈0부터 시작하는 단독방 심계명〉 스티커 배포
- 6월** 6/1 열림터 퇴소인 자립지원 프로젝트 〈뜨우리풀짝기금〉
 6/4 [온라인]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6/5 대화가 공동대응 기자회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 선포식〉
 6/9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6/11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6/13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시작 (8회기)
 6/29-7/3 [온라인]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

된다
상담소



자립에 관하여

캐롤

9

안녕하세요. 저는 열림터에 사는 캐롤이라고 합니다.

음, 처음부터 저에 관해 얘기한다면,

저는 남을 잘 돌봐주지만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 열림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열림터 규칙 잘 지키기

저는 먼저 열림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먼저인 거 같습니다. 저는 약간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규칙을 지금껏 어겼습니다. 자 해할 때도 있고 며칠 전에는 실내흡연이 안 되는데 실내흡연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림터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큰 충동이 든다면 저는 상담을 간다거나 선생님과 면담, 헬스를 통해서 충동을 이겨 보려고 합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도 하려고 마음도 다잡는 중입니다.

용돈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용돈을 받는 족족 옷을 사고 뭐 사고 그냥 막 질렀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라서 열림터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용돈 사용 금액도 일주일에 만원으로 제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과의 약속과 시간 규칙 잘 지키기

저는 성적이 매우 급해서 선생님들이 “오전 11시에 봐” 그러면 카톡으로 선생님을 다텔한 적도 있었고 험박(“자해할 거다. 죽고 싶다” 이런 것)을 한 적도 있고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마음으로도 다짐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 대학과 학교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꿈은 유치원 교사라서 대학을 꼭 진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강사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생각이고 지금 듣고 있는 눈높이 교육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거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가벼운 알바를 시작할 셈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면 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쉬운 것부터 할 생각입니다.

흡연을 줄이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흡연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만 원 이상은 나갈

것 같아 선생님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갑만 피기!!!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편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 자취 계획은?

자취하려면 먼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알바를 많이 해서 적금으로 다 묶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열림터에서 규칙을 잘 지키며 잘 살아서 500만원 지원금을 받고 월세부터 생각해서 차근차근 너무 성급히 하지 않게, 아직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천천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나만의 규칙 +(스트레스 받았을 때)

1. 자해 금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내 몸도 망가진다)
1. 실내흡연 NO NO
1. 담배 일주일에 1갑만 피기
1. 스트레스 만땅일 때 음악과 책을 보든가 퍼즐을 하든가 영화를 본다
1. 욕 줄이기, 유치원 교사가 되면 꼭꼭 지키기, 말 순화해서 하기
1. “죽고 싶다, 자해하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하지 않기!!

여섯 번째 이야기 : 함께 생활할 때 규칙

마지막으로 저는 열림터에서 같이 생활한 언니와 동거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아는 언니와 같이 동거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을 세운다면

1. 허락 없이 남의 물건 만지지 않기
1. 서로 간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하기 꼭!!!
1. 청소 당번을 정하기
1. 외출 시 어디 간다고 얘기하기

아직은 동거를 오래 해본 적이 없어 규칙이 적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해 규칙을 잘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항상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며 나의 건강, 정신이든 몸이든 건강하게 살자!! ☺

캐롤:			
상담소 축하해 - 상담소 야 생일 축하해 나는 열림터에서 사는 캐롤이라고해 생일인가 생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축하한다.....음 솔직히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음 아직 상담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음 여러가지 말을 잘 못하겠어 하지만 상담소는 여성들의 인권을 많이 찾아주고 도와주고 나같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서 너무 난 고맙다고 생각해 해해 그리고 소중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법도 바꿔버리고 페미니스트 정치두 달성됐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N번방 사건도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다 가해자들 싸그리 쫓쳐버려 상담소 번창해라 돈도 마니 들어 오기를 ㅎㅎ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행			
편			
오후 4:41			

_ 상담소 생일에 캐롤이 써서 활동가들에게 읽어준 생일축하 메시지

목소리

지안

그때 그 비좁은 다락방 안에서 당신에게 눌러
납작하고 좁아진 자아가 이제야 숨을 토한다.
너무 숨 쉬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숨 막혔다고.

피해자가 40년을 단지 생존하느라 버둥대는 동안
당신은 지금껏 태어나지도 않았지.
당신에게 이름을 주겠다.
이제부터 이것이 당신의 이름이다.
가해자.
이것이 이제부터 평생까지의 당신 이름이야.

당신이 나의 자연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어.
그때부터 나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일에 어렵고
어디에 있어도 내 자리를 잃고 말았다.
당신이 시작이야.

내 부모의 장례식에 나타나
뻔뻔해도 되는지 아닌지 눈치 보던 그 얼굴.
조문은 그동안 가책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나 해.

잘못을 알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 봐.

반성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각성하지도 말고
용서를 구하지도 말아.
당신에게 내가 줄 것은 오로지 가해자. 이 세 글자뿐.
그 날 이후로 당신의 모든 것이 잘못이고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려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혼자 지던 기억을 당신에게 넘겨주고
가벼워질 수 있지.
당신은 누구의 허락도 구할 수 없다.
당신을 용서할 이는 없다.
당신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화살을 돌리고
이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이 터널의 주인은 당신이 되겠지.
영원히 갇혀.
저지른 잘못을 곰곰이 새기다가 늙고 지치고
병들어.
이 목소리가 명령한다.
죽지 말고 병들어.
가해자의 이름으로 병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마. ㄹ

상처 입은 치유자

BSH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를 보면 작중 주인공인 김지영은 글을 쓰는 것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극복한다. 내 삶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던 성폭력과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후에 난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하며 스스로 괜찮은 척 해왔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극복했고 또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눔터의 작은 공간을 빌려 생존자의 목소리를 내어보고 더불어 나 자신을 또한 치유해 보고자 한다.

나는 생경한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중도장애인이 되었다. 중대한 질병이었지만 젊은 나이로 너무 아쉬웠고 또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어느 병원에서 재활을 받는 중에 환자로 지정되어 참여했다가 수십 명이 있는 세미나 장소에서 심각한 언어성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 치료가 급했기에 책임자의 정중하고 간절한 사과만 받고 그 사건은 유아무야 넘어갔고, 병원에서의 특히 재활치료현장에서의 성폭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출처 : pixabay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 곳에서 다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건강의 악화로 그것이 가해자의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과실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계속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또 한 사람의 약자이므로, 다른 의사 선생님과 치료사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난 건강을 위해 양심을 비겁하게 묻었다.

하지만 그 물리치료사의 석연치 않은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다른 선생님들과 환자, 환자 보호자, 간병인들의 증언과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증언은 한둘이 아니었다. 물리치료 여자 실습 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라 하는 등의 수차례의 은밀한 성폭력. 실습점수가 걸려있는 학생들이 거절할 수 없음을 안 가해자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한 행위. 하지만 이 사실을 학생들을 파견 보낸

그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부모님들이 아셨더라면 별일 아니라 넘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또 중증장애인인 어린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무례한 행동과 특히 인지가 없는 할머니들만 골라서 치료 중 성추행을 일삼은 행위(행위의 내용은 생략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환자, 간병인 등 목격자와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었다. 나는 시간이 지난 후 일련의 가해자의 행위가 확정적 고의임 확신했다.

그 치료사의 안하무인적 행동과 반성 없는 고압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나와 다른 피해자, 목격자들은 병원에 피해 사실을 가감 없이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2차 가해들,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런 내용의 사실을 알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보복성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용기 있게 말한 것에 대해 음해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심히 놀라웠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의 음해가 될 수 있다는 한 담당 여성 직원의 생각 없는 인사는 내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일부 남성 동료들의 행동에 분노가 일어났다. 인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병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그 정도 수준인 것에 크게 실망했고 통탄스러웠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손해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나와 피해자들은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 치료기회의 획득을 바라지 않았고 또 타인의 교사로 인하여 혹은 남에게 이용당하여 신고, 고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또 그 정도로 정의롭지도 않다. 단지 내가 입은 피해와 목격한 '진실'을 '진심'으로 알린 것일 뿐이었다. 비교할 순 없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미투(MeToo)한 김지은씨의 2차 가해 상황

이 이런 것이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병원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우리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 개탄스러웠다.

그 후 또다시 가해자의 부인이 병원의 어느 기도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주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가 치료를 한 번 더 받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기도를 한 시간이나 '들려주는' 명백한 2차 가해를 했다. 나는 그 당시 정말 그 부인이 믿는 신이 존재하신다면 나를 그 가해자를 신고, 고소, 고발하라고 전국의 수많은 병원 중에 굳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병원에서 내쳐지고 평생 걸을 수 없어도 할 말을, 아니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바로 그 여자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잘못에 대한 명백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는 못 할망정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그것도 신과 신앙을 결부시킨 2차 가해는 나에게 실로 큰 유감이었다. 난 심한 충격으로 참을 수가 없었고 그 후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건강이 악화하여 힘들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양심적이고 정의감에 투철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 일부 직원분들의 용기 어린 결단으로 가해자는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의 병원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데 나 혼자 예민해져 그 성추행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병원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괴로웠다. 또 지난 1년간은 까닭 없이 차오르는 분노와 무기력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배려와 선생님과 다른 환자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또 정신적 회복의 일환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행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성폭력피해자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은 실로 큰 소득이었다.

최근 가해자가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향후 절실한 반성과 함께 자신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똑같은 잘못의 반복으로 완전한 법의 심판을 받을지는 오롯이 그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일견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해자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만약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탓이요, 책임이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본회퍼만큼은 정의롭지 못해도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

서두에서 말한 <82년생 김지영>의 결말로 돌아가 김지영이 글쓰기를 통해 병을 고치고 자아상을 회복해 가듯이 글쓰기에는 실로 놀라운 힘이 있다. 이 짧은 글을 쓰는 중에도 나 자신이 치유되어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어느 책의 프롤로그에서 흠결 없고 상처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구절을 읽고 그 말이 내 폐부에 직접 와닿았다. 나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라는 하나의 사회적 약자의 법적 조력자가 되는 소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성폭력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동굴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농임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사명. 이를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스스로 무기력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아볼 것 다짐하는 바이다.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 특히 인지가 온전치 못한 할머니들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깃들기 바라며, 또한 나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온전한 용서를 하게 되길 바라며, 또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글을 맺는다. 🙏

회원소식지 나눔터 87호 생존자의 목소리 투고 안내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삶과 경험이 담긴 목소리를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형식 :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 A4 3매 이내(1회 게재) / 6매 이내(2회 게재)
보내실 곳 : ksvrc@sisters.or.kr
문의 : 02-338-2890
기간 : 2020년 11월 30일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십억 명의 저항, ONE BILLION RISING

앞_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지난 2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슬로건으로 함께한

국제공동행동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매년 2월 14일이 오면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춤을 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십억 명의 저항'을 뜻하는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은 2012년부터 시작된 범세계적 공동행동입니다. 왜 하필 십억 명이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구타 또는 강간 피해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 수는 십억 명에 이르죠. 이에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은 함께 폭력에 맞서는 춤을 춤으로써 생존자들의 힘과 연대를 보여주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 2월 14일일까요? 바로 그날이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 V-DAY이기 때문이에요.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를 뜻하는 동시에 승리(Victory)의 날, 보

지(Vagina)의 날을 뜻하는 V-DAY는 1998년 뉴욕시에서 시작됐어요. 저명한 작가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이며 친족 성폭력 생존자이기도 한 이브 앤슬리의 제안으로 시작돼, 지금은 매년 140여 개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살해, 여성 성기 절제, 강제 조혼, 인신매매와 성노예제, 성과 재생산 억압 등을 포함)의 현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대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출처: 동아시아 레코퍼아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은 2013년에 V-DAY 15주년을 맞아 기획된 새로운 국제 공동행동이에요. 특별히 정해진 주최기관이나 형식은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2016년-2017년에 (사)문화미래이프와 평화어머니회 회원들이 구성한 '여성 평화밴드'가 매월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2019년과 2020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라는 슬로건으로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작년에는 안무가 모니크의 도움을 받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동작을 응용한 멋진 안무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안무를 배우고 연습하는 '춤추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함께 춤을 추는 '2019 ONE BILLION RISING IN KOREA' 전국공동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상담소 회원 노이가 촬영·편집해준 역동적인 뮤직비디오와 당시 상담소 인턴이었던 마이라가 출연한 안무 영상을 상담소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올해는 2월 12일(수)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한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



결부터>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문화공연으로 춤을 추었고, 2월 15일(토) 오후 2시~5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회원놀이터의 일환으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판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판화 프로젝트>는 춤추는 여성들을 참여자들이 직접 그리고, 파고, 찍어서 판화로 표현하는 워크숍이었어요. 2019년 홍콩에서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공동판화 프로젝트를 2020년에는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었죠. 이번 공동판화 프로젝트를 기획한 동아시아 에코토피아는 매년 연대하는 캠프를 꾸려 누구나 자율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 그룹으로, 올해는 양평, 서울, 강릉, 전주, 구례, 벌교, 서귀포, 제주, 군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총 13번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해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공동주최로 진행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판화 프로젝트>는 그중 5번째 순서였어요.


상담소에서는 총 13명의 참여자가 워크숍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먼저 나무판에 밀그림을 그리고 조각칼로 조금씩 나만의 춤사위를 파냅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저는 생각보다 힘 조절이 어려워서 나무판에 구멍을 뚫을 뻔했어요. 조각을 끝마친 사람은 롤러로 나무판에 잉크를 빈틈없이 바르고, 바닥에 잘 고정된 뒤 그 위에 종이를 얹습니다. 밀대가 따로 없다 보니 각자 발로 꺾꺾 밟아서 판화를 찍어내야 했어요. 너무 살살 밟으면 잉크가 덜 묻어나와서 판화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너무 세게 밟으면 종이가 찢어지거나 밀려서 판화를 망칠 위험이 있어요. 나란히 서서 흔들흔들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마치 함께 느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판화들! 흑백 판화임에도 저마다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신기했어요. 각자 개성에 따라 조각하는 선의 굵기와 깊이도 다르고, 춤추는 여성의 자세와 형태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든 판화는 과연 어느 것이었을까요? 힌트는 상담소의 상징! 모두의 판화를 모아서 하얀 천에 찍은 단 하나의 작품은 나중



— 마지막 판화까지 꼼꼼하게 찍어서 완성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공동 판화 프로젝트>
잘 보존하고 기억하기 위해 액자를 맞춰 상담소 모임터에 걸었다.

에 정성 들여 표구하고 액자에 담았습니다. 상담소에 오면 보실 수 있어요.

ONE BILLION RISING 선언문은 모든 여성(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리고 유동적 정체성을 가진 모든 여성)을 성적, 신체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 또는 기후 위기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뿐 아니라 자본주의, 식민주의, 인종 차별주의, 제국주의, 전쟁, 기후 재앙 등도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냉소주의, 증오, 분열, 파괴가 아닌 행동, 신뢰, 연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춤을 함께 추게 될까요? 다음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함께, Shall We Dance? 

정의연 사안, 그 곁에서

존엄의 조건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9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반대 운동이 지나온
격동과 논란의 2020년 5월,
그 곁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여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중심에 있던 분께서, 마찬가지로 중심에 서 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그리고 오랜 정의연 활동가이자 이제 막 21대 국회의원인 윤미향 운동가를 향해 비판, 토로, 제언 등을 터뜨리는 내용이었다. 그 날 이후 약 두 달간 모든 채널의 뉴스에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운동가들에 대해 도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나쁜 환경에서 필요한 논의를 부여잡기

'필요한 논의가 나쁜 환경에서 불가능한 시간' 지난 5월에 느낀 고통을 표현하자면 그렇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쉼터 앞에서 사진 기자들이 구름 떼로 플래시를 터뜨렸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 쉼터 안마당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사진이 각종 기사를 장식했다. 불필요하고 공격적인 개인의 사생활 까발리기, 망

신주기, 비난 선동하기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듯한 언론 보도들 사이에서 충격, 염려, 괴로움이 흘러갔다. 무엇도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슨 논의를 건져 올리고 펼칠 수 있을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상담소 후원회원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여러 복잡한 마음을 SNS 등에 적었다. 임원들과 활동가들은 곳곳에서 토론을 벌였다. 정의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여성인권운동단체를 거점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상근자, 임원, 회원, 내담자, 지지자 시민들 -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했다. 지원 단체와 피해자의 논쟁과 갈등, 활동가 개인과 단체의 관계적 체계, 세기에 걸친 전시 성폭력 대응 운동의 방향과 목표, 그 과정에서의 관점과 쟁점, 단체 재정운영 투명성 책무 등. 우리에게 나눌 이야기는 사실 많았다.

6월 7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거주 쉼터에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온 후, 15년 넘게 쉼터에서 할머니 선생님들을 돌보고 지원하였던 평화의우리집 손영미 소장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은 말하기 어려운 깊은 침묵감 속에서 피해자와 지원자, 지원자와 지원자,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어 우리를 더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이끄는 '라포'와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입장문을 써, 고인에게 인사를 드리며 당시의 정국에 이야기 나눠야 할 바를 겨우 하나 띄웠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 _

존엄해지기의 전략이 서로 부딪칠 때, 조건의 변화를 살피기

상담소는 피해를 경험한 사람, 그의 말을 듣고 사회적으로 울려 퍼지게 하고 여러 사회적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는 지원자, 활동의 거점과 살림살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회적 힘을 만든



_ 제1426차 수요시위에서 묵념 중인 오매 부소장

는 회원들이 함께 일한다. 운동가와 전문가라는 지칭은 필요와 맥락에 따라 우리 스스로 가져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붙여지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의 위치성과 각각의 역할, 이것이 가져오는 협업의 방식은 긴장과 시너지를 둘 다 품고 있다. 차이를 지우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면서 서로 경합, 토론, 협력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든다. 이러한 관계성은 상담소와 쉼터를 거점으로 삼은 여성인권운동의 움직임에 배어 있다. 2004년 발간한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에서는 이를 '삼각관계'로 말했고(권김현영), 2019년 열림터 2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생존자, 지원활동가, 회원 세 관계를 캐릭터로 표현하고 3인 3색 토크를 열기도 했다.

젠더화된 권력 관계에 의해 '여성화'되면서 상실과 훼손을 겪게 되는 존재들과 소수자들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여정이다. 그러나 각기 다

른 위치성은 그 전략과 방법과 속도, 사용하는 언어, 우선순위, 에너지 배분 등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형성한다. 어떤 이에게는 끝까지 타협이나 용서 없는 강력한 처벌이 목표고, 어떤 이에게는 협상, 대화, 용서, 합의를 통해 통제감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상황, 조건이 달라지면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단체와 활동가들은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소진 예방과 환류되는 체계가 중요하다. 수많은 개별적 데이터를 통계 자료로 도출하여 보편성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사회적 요구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작업을 한다. 일정 정도의 예측 가능성, 목표치와 달성도, 일과 삶의 균형을 규범으로 만들어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후원회원들은 참여하는 마음을 최대치로 실천하여 특정 단체에 돈을 보내고 마음을 보낸다. 정보로부터 멀리 있어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맡겨두고 지켜보면서 느슨한 신뢰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서로의 차이가 세계 부딪치는 순간은 여성인권운동에, 각 위치의 사람들에게, 단체에게 여러 형태의 충격을 가져온다. 누구의 판단이 더 나은지, 어떤 정보가 더 믿을 만한지, 어떤 선택이 누구의 지향과 목표에 근접한 것인지 매번 새로운 질문 앞에 놓이는 듯하다. 그러나 '존엄함'의 회복은 변경되는 조건, 변화하는 주체와 환경 속에서 달라지는 숙제다. '존엄함'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해경험자-생존자, 지원자-활동가, 단체, 회원, 시민들은 존엄함을 회복하는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여정에서 현재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다고 감각하는가? 피해생존자가 말하고 있는 존엄함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단체와 활동가들의 감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더 꺼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현재의 언론 환경, 2020년 5월이라는 시간성, 대구와 서울이라는 지역적 위치성은 존엄함의 조건과 지형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2020년 5월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존엄함을 회복하는 협업적 여성인권운동을 어떻게 지속해갈 것인가. 이제 겨우 질문을 꺼내어 놓는다. ㉠

『증언혐오』를 읽고

“영리한” 증언자와 “영리하게” 연대하기*

희음_시 쓰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

9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를 사기꾼으로 공격했던

증언에 대한 왜곡, 조작, 비난, 협박의 실상을 밝히는 책

『증언혐오』를 소개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를 압도한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김수민의 포스팅이 있었던 2019년 4월 16일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윤지오의 증언, 즉 그의 ‘메시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일을 포기한 채 윤지오라는 ‘메신저’ 쪽으로 시선을 틀어버렸다.** 윤지오라는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에 지배당해버린 것이다.

‘메신저’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나는 사실 윤지오 증언이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처음 와닿게 된 것인지조차 한동안 잊고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먼저 “미투-위드유 봉기가 다중의 섭정 정치 형태로 표현된” 국민청원인,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2018년 2월)이 있었다. 청원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같은 해 4월 2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전 조사대상으로 선

* 이 글은 <일상비평 웹진 쪽 (2020.05)>에 실린 서평을 축약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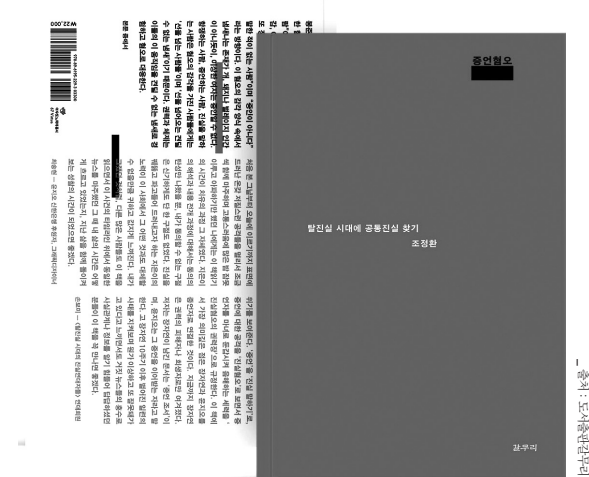
** 이 글에서는 존칭과 직함 모두 생략하고 이름만 표기하기로 한다.

정되었고, 5월에는 재조사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 흐름에 용기를 얻은 윤지오는 2018년 여름, <PD수첩>의 “고 장자연”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기로 결심했다. 정식 조사에 앞서 윤지오는 사건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천의 성추행 현장에 대해 증언했고, 이 증언을 기해 조*천은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윤지오의 증언은 드디어 2019년, 장자연 리스트의 일부 내용을 증언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이 ‘리스트’에 대한 윤지오의 증언이 바로, 김수민으로 하여금 윤지오라는 ‘오염된’(즉 “영리하”고 “거짓말하는”) 메신저를 생산하게 하고, 윤지오라는 사람에 대한 의심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매개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수민은 애초 윤지오가 리스트를 본 적이 없으며 윤지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야 그 비슷한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지오는 2009년부터 일관되게 리스트를 보았다고 말해왔다. 장자연에게 문건과 리스트를 쓰도록 도왔던 것이 유장호인데, 그와 윤지오와의 2009년 통화 내용에서 그 리스트가 언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장자연 친오빠)의 요구로 봉은사에서 리스트가 불태워질 당시에도 그 리스트의 존재를 보았다는 진술을 윤지오는 2009년과 2019년 모두 동일하게 해왔던 것이다.

윤지오라는 메신저를 통칭하게 된 (부정적 의미의) “영리”함 역시, 책 『13번째 증인』 출판을 통해 윤지오가 “영리하게”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한 것에 대한 왜곡의 효과로서 창출된 개념에 불과하다. 김수민과 박훈은 윤지오의 영리함을 “영악”과 “가식”과 “사기”로 몰아갔고, 거기에 가로세로연구소(김용호)와 김대오까지 가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윤지오의 증언 행보 전체를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영리함의 중심에는 윤지오의 ‘후원금 모금’이 있다. ‘돈’이라는 세속적 매개물이 섞여든 것만으로 윤지오는 “사기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후원금 모금의 배경은 ‘죽임당할 위협’이었다. 김수민을 비롯한 ‘탈진실 공모자’



들은 이에 대해서도 그 위협감과 공포가 실재하지 않으며 공포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그 또한 거짓이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자연의 죽음을 떠올려보자. 그가 기록하고 남긴 건 성착취 카르텔을 구성하는 술한 이름들(리스트)과 성폭력에 관한 사실들의 나열(문건)이었다. 유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리스트는 불태워졌지만, 2009년에 남겨진 관련 증언과 증거들이 그것이 유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윤지오가, 이번엔 그 죽음의 차례가 자신에게 왔음을 직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굳이 윤지오가 아니더라도, 실재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는 공포가 여성들의 일상 안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안다. 말했거나 말할 수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임당했다(고 믿는다)면, 말을 품은 채 남겨진 한 사람을 압도하는 감정이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안다. 그 무형의 감정은 실재하는 유형의 일상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실재한다.

결국 3월 18일에, 윤지오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시간 5분 동안 1억 1천 7백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입금되는 “사건”이 기록된다. 여기에는 익명 혹은 격려 문구로써 입금인 란을 대신한 이가 실명 후원자 못지않게 많다. 무조건적 증여가 이

루어진 것이다. 이 후원금 ‘운동’이, 국가가 해주지 않는 윤지오의 신변보호를 시민이 대신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때, 이는 “증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범사회적 “연대”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집행위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기부***는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인 박훈, 최나리는 후원금 증여자들을 “피기망자”로 규정하면서 윤지오를 불법행위자로 몰아가기에 이른다. 후원자 중 누구도 스스로를 피기망자로 여기지 않은 때였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최나리가 진행하는 무료 반환청구 소송에 함께하자고 주체 격으로 이를 촉구하며 이 일에 앞장선 것은 후원자조차 아니었던 김수민이었다. 그 집요하고도 오랜 주문과 부추김 끝에 겨우 439명이 움직였다. 5,745명의 신한은행 후원자 중 단 439명이 김수민에게 이끌리다시피 하여 “김나리의 소송에 ‘동의’ 서명”을 한 셈이다.

이 외에도 윤지오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음해와 모략들이 실로 난무했는데, 김수민의 저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첫 포스팅이 있는 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논의들은 박훈 변호사의 고소·고발(김수민 작가 대리의 명예훼손 고발, 모금 벌금 사기 혐의 고발)에 의해 사법 영역으로 휩쓸리듯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시민들의 사회적 토론의 장은 일거에 말소당했고, “다중들은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경꾼의 위치로 밀려”나게 되었다. 가슴 아픈 일은 윤지오가 ‘마녀사냥’당해 결국 이 나라에서 추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왜 장자연을 죽게 만들었는가?’라는 그 절실했던 사회적 물음, ‘윤지오는 사기범죄자인가?’라는 사법적 물음으로 추락해버린 일이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로서, 시민의 바람과 요청을 디딤돌 삼아 메시지를 전하러 이곳까지 왔다. 그는 메시지의 순수증여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후 그가 시민 연대자들로부터 모금이라는 이름의 순수증여를 받자마자, 그라는 ‘메신저’가 주목받게 됐고 윤지오는 그 즉시 영리한 사기

꾼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증언자에서 잠재적 범죄자 신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어쩌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증언할 자격을 갖추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증여로서의 연대에 응답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자살당할’ 위험과 위협감 속에 있다 해도 순수한 증언자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은 곧 증언하려는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언제나 죽음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결국 살아서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순수라는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죽은 장자연을 위해서는 윤지오를 죽여야 한다”는 박훈·김대오·김수민 트리오의 “리트로넬로”에 저자가 치를 떠는 것도, 그들의 언술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을 읽었기 때문인 게 아닐까.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다. 증언할 의지가 있었고, 또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고 살기 위해 고발 문서의 형식으로써 증언했음에도, 그 모든 증언 문서가 ‘유서’로 치환되고, 증언 직후의 알 수 없는 죽음이 ‘자살’로써 과거사(史)화되고 만 사건의 당사자가 이미 죽은 자라면, 그는 혼자서는 무엇도 밝혀낼 수 없다. 살아있는 자의 “영리한” 증언과 실천만이 사건을 빛 쪽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사건 뒤에 숨은 모든 추악한 남성 권력 카르텔과 여성에 대한 학대, 착취, 제노사이드를 폭로할 수 있다.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증언만으로 이 일을 완수해내기에는 역부족일지 모른다. 장자연이라는 증언자의 증언을 윤지오가 이어받고, <탈진실 시대의 진실연대자들>이 이것을 빠짐없이 팔로업하고, 조정환이 이를 기록하고 출판하는 식의 “영리한” ‘증언릴레이’가 더 먼 곳까지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영리한” 이들이 “생명의 눈”을 부릅뜨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며 시선을 주고받을 때 “증언협오”라는 흐리멍덩한 눈은 비탈 아래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㉞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서평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이 모금은 윤지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요구와 이상호 기자에 의한 통장 공개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기의 코로나19 시대, 활동가들은 어떻게 '활동'해?

백목련_사무국 활동가

9

2020년을 집어삼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열림터가 봉쇄 위기에 처한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나선 백목련 활동가의 대활약!

처음 코로나19 발발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끝을 가늠할 수 없이 감염병과 함께해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사스도 신종 플루도 메르스도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지만 내 주변까지 다가오지는 않았고 또 일정 기간 후에는 종식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여서 처음의 대응은 미숙했다.

발발 초기에 지자체에서 방역물품 현황 조사 요청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상담소는 수량 조사대상 목록 중 체온계와 마스크도 상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그럴 필요도 없었거니와 사실 상비 약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19에 대해 보도했지만, 감염자 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전염병이 끝나가나 싶던 때였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집단 활동으로 인해 지역 내 감염으로 상황은 심각하게 변했다. 확진자 동

선에 상담소가 있는 합정도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활동가가 감염이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와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자칫 열림터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다. 혹시라도 언론의 표적이 되면 시설 폐쇄나 위치 노출도 걱정해야 했다.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본인의 생활 공간을 떠나 시설 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이 또다시 원치 않는 이주나 위험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활동가들도 있어서 누구도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방역물품 대란으로 아무리 돈을 줘도 마스크나 체온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관 차원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면 활동가들 개인은 더더욱 마스크 수급에 어려울 수 있는 데다 출퇴근 이동 시간이 긴 활동가들이 마스크도 없이 다녀야 한다면 활동가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최소 인원만 당번제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업무가 어려워 증상이 있는 사람만 재택근무하기로 근무 형태를 여러 번 전환했을 때 위기감은 더 높아졌다. 인터넷으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무국 동료인 닷별과 망원, 합정 일대의 약국을 일일이 돌며 체온계와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열림터는 사태 초기에 구매 취소를 겪어가며 방역물품을 준비해둔 상황이었다.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1주일에 2장밖에 안 되지만 공적 마스크 구입비라도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위기감을 느낀다 생각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다른 활동가들도 방역 담당자만 느껴야 하는 책임감은 아니라며 같이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에 여유 수량이 있으면 구입한 공적 마스크를 상담소에 기부하기도 했다. 체온계는 열림터에서 생활인과 약국 동행하는 길에 우연히 체온계가 입고된 걸 알아서 대신 구매다 주었다. 8:30과 10:00로 출근 시간을 달리해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사무실에 손닿는 지점들을 소독하는 당번제도 도입했다.

우리의 결정이 과잉인가 예방인가는 의문이 들 때마다 서로 토론과 논쟁을 해 가며 공통의 합의를 마련했다. 원고 분량 때문에 많이 요약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누구도 확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활동 반경을 좁히고 번거로운 일상 업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았다. 외부 일정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우리도 계획했던 행사를 연기하면서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도 큰 고민이었다. 그래도 이 기간에 낯선 대화였든 그간 나누지 못한 생각을 교류하는 상황이었든 그 전에는 각자 팀 업무를 수행하느라 접점이 적었던 우리가 하나의 문제 상황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속 의논하면서 결집력이 높아진 것 같다.

상황이 장기 지속되면서 높아진 피로감을 해소할 뭔가가 필요했다. 그때 나는 이번엔야말로 상담소 생일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매년 4월 13일 생일기념으로 떡을 준비해 여러 단체와 기관, 거래처에 방문하는 연대 행사를 진행했다. 시국이 이러니 안전을 위해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바쁘게 이슈 대응을 하고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며 오히려 스스로 돌보기를 소홀히 하는 동료들과 호흡을 고르고, 이 좋은 봄날을 위기감으로만 채우지 말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기억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

문득 3년 전 각자 김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 와서 김밥 장인인 올림의 파이 활동가가 싸준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다. 사실 이제야 말하자면 내가 그때 김밥에 꽂혀 있었다. 파이와 활동가들이 재료를 준비해 오긴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직접 다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수고롭고 번거롭다며 우리의 상담소 생일맛이 셀프 축하 소풍 계획을 만류하는 동료들에게는 이제 우리도 우리를 돌볼 때가 되었다며 설득했다. 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에 올림의 주리 활동가가 지원군으로 불기로 했다.

이미 많은 상담소 업무로 TF 활동에 익숙한 우리는 김밥 종류를 선정하고 필요한 재료 목록을 만든 뒤 재료 준비부터 바쁘게 특수 임무에 돌입했다. 당일



_ 상담소 생일 맞이 소풍을 위해 열심히 김밥을 만들고 있는 백목련, 파이, 주리

아침에는 상담소 부엌에 약간의 전문도 돌았던 것 같다. 비장한 우리 셋은 파이의 지도에 따라 당일 김밥 만들기 세부 일정과 이동 동선을 확인한 뒤 분장한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파이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그날 그림자 노동을 도맡아 했던 주리가 나서서 해결했다. 김밥을 다 싸서 각자의 도시락통에 넣어주고 두부미소된장국을 끓이고 미리 주문한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을 수령했다. 소풍에 각자 마실 음료는 성문화운동팀의 신아 활동가가 자원해서 주문을 받고 사러 갔다 왔다.

점심시간에 일사불란하게 각자 도시락통과 음료를 챙겨주고 샌드위치와 과일 도시락, 돛자리를 배분한 뒤 서로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한강공원으로 떠났다. 유치원생들 마냥 2줄로 열을 맞춰 이동하며 오랜만에 다들 긴장이 아닌 들뜨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평소 활동하던 방식에 제약을 걸고 주춤거리게 했지만 내 곁의 동료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현장에서 겪는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했다.



_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한강 변에서 소박한 생일파티를 즐기는 활동가들

여전히 우리는 매일 소독을 하고 서로 마스크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바뀌거나 집단감염이나 지역 내 확산세가 가속화되는 것 같으면 다시 우리의 방역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날 선토론을 한다. 이 피로감을 견디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든든한 동료라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코로나19가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해봤더니...

유랑_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3월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된 재택근무제,
과연 활동가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의상담팀(이하 '상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랑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 어떻게 견디며 지내고 계시는가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부리던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상담소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단위 활동가 등 많은 외부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전화 상담은 운영하되 면접상담은 운영하지 않았고 상담소에는 당직자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택근무를 방해하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서보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상담팀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지원입니다. 전화 상담을 받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면접 상담을 한 후, 변호사나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상담 일지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쓴 일지를 읽고 검토하는 것이 상담팀 활동가 모두가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일상 업무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담팀은 내담자와 주로 상담팀 전용 핸드폰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지원하는 내담자와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면접상담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피해자 지원 업무는 미뤄졌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상담일지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를 검토하거나 일지를 참고하여 상담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정보와 지원 사건에 관한 내용은 사무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서 재택근무 기간에는 한글 문서 작성 등 한정적인 업무밖에 할 수 없었지요. 간혹 지원 사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당직 근무를 하는 활동가에게 부탁해서 내용을 전달받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팀 활동가들은 어땠을까요? 여성주의상담팀처럼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열린터 활동가 역시 재택근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쉼터 활동가들은 피해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생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재택근무 중에도 쉼터로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한 사무국 활동가는 재택근무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홍보 웹자보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집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택근무에 대한 불편함의 정도는 업무와 팀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였지만, 당시 상담소는 상담, 교육, 소모임 등 평소처럼 사람들을 대면하는 주요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출근하고 있지만, 비대면 업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회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있고 최



— 재택근무 중인 활동가들과 함께 회의하기 위해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에 최초로 도전했던 3월, 그때는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근에는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를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첫 온라인 중계 토론회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상담소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잘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대면 상담, 수강생의 께덕거림을 알아차리는 강의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집회 현장 등 한 공간에 사람과 사람이 모일 때 만들어지는 라포(rapport)*, 연대감, 힘과 활력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그리워하고 있을, 집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㉞

*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담학 사전)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는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주)피알판촉, ssy, 강민지, 강상현, 강석진, 강성구, 강숙영, 강은진, 강태원, 고희선, 광동욱, 광하진, 구현모, 권다혜, 권술, 권수혜, 김애술, 김가현, 김강빈, 김경찬, 김고은, 김금택, 김나은, 김다혜, 김대근, 김도연, 김도윤, 김민범, 김민호, 김상원, 김석주, 김신재, 김성수, 김세운,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승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희, 김시원, 김영룡, 김영신, 김예림, 김요섭, 김용장, 김우람, 김원국, 김유영, 김유진, 김종우, 김주아, 김주현, 김주현, 김주혜, 김지원, 김지현, 김진범, 김진아, 김진용, 김태영, 김태완, 김태원, 김하영, 김현지, 김혜선, 김혜순, 김혜연, 김혜은, 김혜지, 김혜진, 김호진, 김호원, 김호현, 김희정, 나혜선, 나희영, 남궁우연, 남지효, 노태운, 도정호, 류지은, 류희준, 마민지, 문윤상, 문형준, 문호진, 박기완, 박려우, 박민아, 박봉정숙, 박비재, 박석찬, 박소영, 박수용, 박승수, 박종희, 박주현, 박준엽, 박지수, 박지연, 박지오, 박지혜, 박지희, 박진아, 박찬희, 박한샘, 박현빈, 박효원, 박희주, 반순미, 배도준, 배명진, 배상영, 배진영, 백정식, 백성숙, 백성현, 변승현, 변지환, 서다희, 서도원, 서동인, 서성진, 서원, 서재유, 서준형, 서채령, 서현아, 서혜미, 성연이, 성지수, 손수민, 손지민, 송용원, 송인경, 송차령, 송형민, 신정욱, 신고은, 신다운, 신다희, 신민정, 신석진, 신수아, 신유정, 심다운, 심효진, 안원숙, 안위, 안정, 양도훈, 양선화, 양아슬, 엄희수, 오경민, 오동식, 오익석, 오현석, 우창민, 원미영, 유수연, 유승민, 유영서, 유필요, 유하나, 윤소미, 윤소정, 윤정원, 윤정희, 윤현아, 이건영, 이경아, 이귀환, 이규리, 이기백, 이동훈, 이미영, 이상민, 이선택, 이설하, 이상주, 이성호, 이수정, 이승준, 이연주, 이연지, 이영주, 이원구, 이원필, 이유진, 이윤정, 이주연, 이주혜,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인, 이지혜, 이지훈, 이진솔, 이진희, 이찬휘, 이하연, 이현우, 이현하, 이현화, 이혜인, 이혜진, 이호준, 이희설, 임건호, 임기택, 임서영, 임소정, 임유진, 임은구, 장도희, 장연주, 장용희, 전소영, 전소율, 전영은, 절은재, 정나리, 정미경, 정미사, 정민수, 정민희, 정보리, 정복선, 정상순, 정윤상, 정종원, 정지혜, 정지혜, 정현철, 정희수, 정희정, 조명준, 조선우, 조성민, 조소연, 조승주, 조유빈, 조준희, 조현석, 지성열, 진명선, 진수희, 채훈배, 천석균, 천석균, 천주원, 최민정, 최빛그림, 최세진, 최소영, 최승찬, 최여정, 최원석, 최유진, 최지원, 최찬양, 최현윤현, 최혜정, 최혜민, 탁윤희, 표하늘, 표혜림, 하승표, 한민천, 한예림, 한유림, 함아름, 허지은, 허태균, 홍서윤, 홍예빈, 홍유진, 황다운, 황인술, 황재일, 황준하, 황혜림 (이하 286명)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aaami,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광내, 강길보, 강남식, 강동화, 강동희, 강동록, 강민정, 강민너, 강민지, 강바들, 강보길, 강소희, 강수지,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창일, 강희진, 겅스로봇, 계경문, 고금이, 고보경, 고봉섭, 고성관, 고아모, 고예민, 고은별, 고재경, 고장남, 고정삼, 고지연, 고지은, 고지현, 고태우, 광경하, 광상아, 광영화,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광혜선, 구민희, 구현지, 권경아, 권구홍, 권갑현영, 권서현, 권선경, 권소영, 권수현, 권수혜, 권영신, 권예선,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진, 권효중, 금철영, 기독교위드윌센터, 길은정, 김가림, 김가영, 김경선, 김경아, 김경주, 김경희, 김계진, 김광만, 김광진, 김광원, 김기태, 김기혜, 김길우, 김나경, 김나연, 김나영, 김남현, 김다미, 김다운, 김다희, 김다희, 김다현, 김도린, 김도홍, 김도희,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민, 김명선, 김문영, 김문주,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선, 김미선, 김미순,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기, 김민아, 김민아, 김민우, 김민은,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태, 김민환, 김보명, 김보연, 김보화, 김복영, 김삼미, 김상정, 김새롬, 김새별, 김서화,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선하,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미, 김성욱, 김성자, 김성희, 김소라,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영, 김순원, 김순자, 김슬아, 김승연, 김승재, 김승현, 김시연, 김신효정, 김안나,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림, 김연지, 김연경, 김연정, 김연정, 김연우, 김연희, 김영나, 김영선, 김영숙, 김영환, 김예람, 김예리, 김예지, 김옥주, 김옥선, 김용식, 김우연, 김원정, 김원식, 김유리, 김유림, 김윤경, 김윤정, 김윤영, 김윤희, 김은경, 김은솔, 김은아, 김은정,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설, 김재원, 김재원, 김정민, 김창아, 김정완, 김정은, 김정혜, 김종수(권상범)/리자몬드, 김종웅, 김종철, 김종희, 김주연,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준호, 김지민,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김해리), 김지훈, 김진주, 김재연, 김준화, 김슬배, 김탁환, 김태원, 김하나, 김하나, 김한선혜, 김해정,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정, 김혜정, 김혜란, 김혜리, 김혜림, 김혜영, 김혜영, 김혜윤, 김혜인,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홍미리, 김화숙, 김효신,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효현, 김희정, 김희란, 나미나, 나선영, 나성은, 나윤정, 나인선, 남민영, 남병희, 남수민, 남순아, 남슬아, 남승현, 남시우, 남우희, 남운영, 남윤아, 남인순, 남정구, 남정형, 남지민, 남지은, 남현미, 남현우, 남현지, 남혜정, 남규미, 노미선, 노선아,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태형, 노희설, 노희지, 더트리그룹(주), 도병욱, 류단, 류호윤, 마정윤, 마준희,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호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박경훈, 박기민, 박기순, 박다위, 박대진, 박덕인, 박명선, 박명하,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보영, 박보은, 박봉정숙,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용, 박성주, 박성준, 박성훈, 박세민, 박소라, 박소림,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진, 박숙미, 박아름, 박아름, 박아린, 박영수, 박영주, 박용순, 박유림, 박윤미, 박윤성,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지, 박은진, 박이은희, 박인기, 박재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용, 박준숙, 박지나, 박지연, 박지영, 박지원,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진, 박진표, 박창경, 박천우,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찬, 박혜하, 박효진, 박희은, 박희정, 박기연, 방은재, 배정, 배재별, 배성진, 배수현, 배우미, 배은경, 배자하, 백정원, 백정훈, 백미순, 백서영, 백성길, 백세희, 백윤서, 백인애, 백지선, 백지연, 백원, 범무사 김강훈 사무소, 변순임, 변주희, 변지은, 변필진, 서권일, 서다희,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민지, 서보일, 서순진, 서연희, 서용원, 서윤정, 서인석, 서정민갑, 서정애,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혜진, 서효원, 서희순, 석승민, 선재희, 선희갑, 설연자, 성기원, 성예랑, 성정아, 소연정, 소희성, 손경이, 손관현, 손다혜, 손명구, 손민지, 손미연, 손미정, 손소희,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송민정, 송석진, 송승준, 송용원, 송유진, 송은숙, 송현민, 송호영, 송정원, 신고은, 신동현, 신명숙, 신상호, 신성용,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선,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나, 신한솔,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은, 신희원, 심성보, 심승주, 심은희, 심조원, 심혜란,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소진, 안윤정, 안재훈, 안지희, 안창화, 안철민, 안준기, 안태희, 안혜수, 안형윤, 양경아, 양도훈, 양동현, 양민희, 양선하, 양성옥, 양성은, 양수안나, 양은주, 양은혜, 양지유, 양창수, 양현정, 양현구, 양효준, 여진희, 엄현정, 여은진, 여주하, 여지윤, 여진아, 오경은, 오경희, 오성곤, 오세희, 오세준, 오승원,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연희, 오영일,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진아, 오현정,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안, 우혜림, 원경주, 원민정, 원민희,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유경미, 유경민, 유경희, 유다솔, 유민수, 유보람, 유선영, 유성혜, 유세정, 유숙조, 유승규, 유승진, 유연정, 유예리, 유인구, 유지아, 유지혜, 유지, 유필요, 유현미, 유형하, 유호정, 윤나래, 윤다정, 윤범석, 윤소진, 윤수현, 윤수진,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용호, 윤은정,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희영, 음선하, 이강화, 이건국, 이진경, 이경미,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규호, 이규하, 이나연, 이나영, 이나임, 이난주, 이남주, 이다정, 이대명, 이도열, 이동구,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진, 이명현, 이명희, 이문주, 이미정, 이미하,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재, 이새롬, 이서영, 이서희, 이선영, 이선혜, 이성은, 이세나, 이세린, 이세민, 이세영,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수안, 이수영,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원, 이순화,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슬아,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승훈, 이승훈, 이신율, 이애린, 이여정, 이연정, 이연표,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원택, 이용택, 이원영, 이원형, 이원홍,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은,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지, 이창우, 이재순, 이재원, 이재원,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종연, 이종희, 이종희, 이주영,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는, 이지는, 이지는, 이지혜, 이창희, 이창영, 이태숙, 이하영,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미, 이현정, 이현주, 이혜정, 이혜정, 이혜란, 이혜지, 이호선,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호린, 이희동, 이희수, 이희숙, 이희화, 임건조, 임경진, 임금희, 임서영, 임설아, 임순영, 임여정, 임유영,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찬용, 임하나, 임효진, 임홍섭, 임희하,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성연, 장성희, 장수경, 장수진, 장연정,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주, 장응희, 장정원, 장정희, 장주리, 장주희, 장진, 장진영, 장철우, 장혜란, 장효정, 전누리,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소연, 전수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경직, 정광, 정교화, 정기영, 정다솔,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리, 정두영, 정분영, 정민성, 정민수, 정민아, 정보배, 정복련, 정선미, 정소린, 정송이, 정수연,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은아, 정인호,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은, 정지원,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주, 정진화, 정현, 정혜윤, 정혜훈, 제갈향선,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동현, 조부호,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순영, 조영선, 조유진,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연,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혜연, 조현규, 조혜민, 조혜인, 조훈제, 주광용, 주명희, 주희진,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인순, 지현, 진명선, 진새록, 차선주, 차선안, 차소영,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아, 천정환, 최경식, 최근우, 최기영, 최대연, 최동석, 최단, 최미숙,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선아, 최성실, 최성호, 최성화, 최수림,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아림, 최연정,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왕열, 최윤희, 최원일,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재훈, 최정은, 최지나, 최지은, 최진경, 최진안, 최희미, 최혜린, 최희범, 최희중,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편휘경, 하다영, 하릉, 하연수, 하유림,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하지은,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소망, 한승진,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솔, 한유림, 한은희, 한일아, 한지숙, 한재윤, 한희정, 함경진, 허라곤, 허민숙, 허선형,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용, 허지혜, 허혜진,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세기, 홍순기, 홍아연, 홍윤희,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진경, 홍잔숙, 황미선, 황선미, 황선유, 황성기, 황성옥, 황성임, 황소영, 황송원, 황숙희, 황애나, 황정진, 황지영 (이상 1,068명)

〉 변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지은, 김효선, 공지백트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박민란, 박성환, 박아영,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련,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열, 이유미, 이유정, 이해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철우, 정다희, 정대련, 정명종, 조인석, 조일래,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이상 59명)

〉 생활인들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석, 강보미, 강소영, 강은재, 고병진, 고화정, 곽선하, 금보경, 김경태, 김광현, 김도형, 김도희, 김문주, 김마우, 김미진, 김미향, 김보민, 김선환, 김성준, 김소라, 김소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잔,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연정, 김원오, 김유숙, 김유엘, 김유정, 김윤혜, 김이슬, 김임향, 김지국, 김지완,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해나, 김혜연, 김혜진, 김효은, 김효진,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영미, 노하연, 노희지, 류수민, 류종현, 문승영, 미씨유림, 민슬기, 박계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종, 박아름, 박영익, 박우영, 박인필, 박정숙,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박혜민, 박혜선, 박효정, 배정원, 백미순, 백상준, 서범원, 서영민, 서해인, 성주희, 소름티미스트 서초클럽, 손정은, 송미현, 송민성, 송지영, 송희원, 신경혜, 신용범, 심연희, 심진섭, 심현실, 안분순, 안효선,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연다희, 염정신,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원지혜, 유선옥, 유예리, 유용석, 유진영, 유채원, 유혜신, 이경선, 이경아, 이다윤, 이도행, 이동영,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연, 이성아, 이수정, 이슬아, 이어진, 이엄지, 이영희, 이옥영, 이윤석, 이은정, 이재현, 이정화, 이종국, 이주란, 이주섭, 이주혜, 이지영, 이지혜, 이찬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형찬, 이혜린, 이혜진, 임광식, 임유영, 임지연, 임지선, 임지순, 장경순, 장다혜, 장명환, 장희진, 전수인, 전소연,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정고은, 정민석, 정민애, 정선희, 정순희, 정은경, 정정희, 정정희,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조경진, 조민정, 조영래, 조윤키, 조은희, 조종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전수희, 채송희, 최강현, 최세은, 최수연, 최영주, 최윤미, 최정림, 최정민, 최정희, 최희진, 추연정, 페미2리, 표아림, 한국가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아마자카마작(주), 한영규, 한예림, 한전부녀회, 한진희,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재량, 홍나영, 홍윤기, 황동하, 황유나, 황은순 (이상 208명)

〉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프라이빗커브, (주)문학동네, (주)플래너리, 강기연, 강민철, 강석훈, 강진경, 강재연, 공도웅, 공도용, 구일, 구혜원, 권미현, 권혁주, 길은정, 김경년, 김경원, 김규연, 김규호, 김나영, 김남호, 김다희, 김다희, 김리은, 김명숙, 김미영, 김민정, 김보경, 김보민, 김사홍, 김서울, 김석주, 김석찬, 김성수,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승미, 김시현, 김영노, 김영석, 김영연, 김예리, 김예옥, 김요섭, 김요섭, 김우빈, 김유엘, 김유엘, 김유엘, 김유정, 김유진, 김윤준, 김재은, 김정화, 김종상, 김종우, 김주희, 김준수, 김지수, 김지원, 김지현, 김지향, 김지현, 김하늘, 김한솔, 김현민, 김희재, 남은영, 남진실, 남채민, 노, 다다생일축하합니다♥, 달리누리 누나, 립유이디엣, 리플라이즈, 문성곤, 민정진, 민주현, 박동휘, 박명선, 박상희, 박서정, 박선우, 박선유, 박선은, 박성은, 박세은,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소희, 박수곤, 박아영, 박예솔, 박우리, 박유라, 박은채, 박은혜, 박정원, 박정혜, 박종권, 박종희, 박준영, 박지수, 박지수, 박지유, 박찬양, 박혜인, 박현준, 박혜영, 방선오, 배수현, 배아람, 배우 수현, 배은석, 백미순, 백지연, 변승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서민가은, 서유진, 서주연, 서지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송다혜, 송제성, 신민정, 신수정, 신예지, 신유정, 심수아, 심우종, 심찬솔, 안분순, 안예은, 안재성, 안지민, 안지성, 양근용, 양나래, 양동윤, 양현경, 연수진, 연수진, 오경준, 오나미, 오도희, 오동식, 오현석, 원서영, 위밋업스포츠, 유병호, 유연수, 유재은, 윤나영, 윤소연, 윤연옥, 윤예민, 윤혜영, 이가영, 이경아, 이도경, 이동근, 이동근, 이세연, 이성직, 이수경, 이수빈, 이수현, 이숙경, 이승현, 이어진, 이엄지, 이연송, 이예지, 이용우, 이원구, 이원필, 이은, 이은비, 이은아, 이은애, 이은영, 이은주, 이재우, 이재우, 이주연, 이주원, 이주희, 이지현, 이지현, 이지훈, 이호석, 이호준, 임기택, 임다빈, 임수민, 임수민, 임지수, 임지혜, 임창곤, 임태관, 장다, 장민정, 장세철, 장수빈, 장지영, 전상민, 정다희, 정상은, 정서하, 정성빈, 정성훈, 정솔, 정수연, 정승혜, 정주형, 정지명, 정지애, 정지용, 정지현, 정현철, 정현태, 정혜리, 정혜리, 조명준, 조성민, 조아진, 조인하, 조주현, 조혜인, 진성문, 책봄체력단련프로젝트, 최다희, 최미정, 최보명, 최성은, 최예솔, 최용호, 최유리, 최지원, 최지원, 최진주, 최하영, 최현경, 추미애, 페미2리, 페미2리, 플래시먼힐러드코리아, 하성희, 하예은, 한소예, 한승희, 한예린, 한울애플러스주식회사, 한유진, 한지연, 한지원, 허성희, 현낙호, 현재훈, 홍주미, 홍지현, 황교빈, 황동하, 황예윤, 황은애, 황정현 (이상 271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제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제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닥벨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센터 열림터 회원 담당 문의: 낙타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곽혜선님의 비타민 등백 레드향 1상자, 한라봉 1상자
 김리아님의 무농약 한라봉 1상자
 김명수님의 몸에 좋은 약재 차 세트
 김혜경님의 과일 가득 크림 가득 롤케이크
 남성아님의 신선하고 맛난 딸기 1상자
 로리주희님의 감기예방 특화 두레 생협 도라지배즙 1상자, 사과즙 1상자,
 만두님의 새 가족 형성을 축하하고 감사 선물로 받은 수박, 지두
 민갑룡님의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건어물 세트
 박현이님의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바삭바삭 쿠키 세트
 백미순님의 통통하고 속이 꽉 찬 수박 2통
 신윤진님의 맛있는 비건 스콘
 안선민님의 상담소 29주년 맞이 생일떡 외 감동란, 오렌지, 체리 등
 안호정님의 매주 목요일 크로아상, 바게트, 감빠뉴 등 갖 구운 빵 한가득
 오한숙희님의 한입에 쏙 먹을 수 있는 감귤 10kg
 이경환님의 쫄쫄쫄한 꽃감 1상자
 임순택님의 활동가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폴리스 1통, 딸기 2팩
 정혜선님의 아삭아삭한 사과 1상자
 최란님의 아기 백일떡 외 사과, 참외, 딸기, 키위, 토마토 등
 황반야님의 롤 넣어서 흔들어서 먹는 미숫가루 50봉
 익명의 생존자님의 말랑말랑 달콤한 감말랭이 1상자

〈위밋업스포츠〉의 활동가들이 에너지 떨어질 때 먹을 각종 빵
 〈평화의샘〉의 천연 수제비누 1상자
 〈4.16재단〉의 코로나19 시국의 필수품 면 마스크 5개

{ 열림터 }

김도연님의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뜻을 모아 보낸 책 1상자
 신의경님의 상큼한 향을 가득 품은 한라봉 10kg
 임순택님의 요리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치캔 1상자
 최지은님의 자유롭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빵 잔뜩
 〈소롭티미스트〉의 더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덴탈 마스크
 〈스트레스컴퍼니〉의 분노와 불안을 날려주는 아로마 스프레이
 〈알알이푸드〉의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미숫가루
 〈이케이코리아〉의 실내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하기 위한 화분과 스탠드